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삼국 · 통일신라시대 - 토기 뚜껑형 등잔(燈盞) ②

뚜껑형 등잔은 등잔 가운데 부분에 볼록한 돌기(突起)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종지형 등잔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이 또한 석유와 전기가 도입되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마치 뚜껑처럼 생겨 더러 그릇의 뚜껑으로 오인(誤認)하기도 하지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자세히 관찰하면 금방 그 둘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 종지형 등잔이 등잔의 심지를 가장자리 쪽으로 내어 사용했다면, 뚜껑형 등잔은 촛대처럼 가운데 돌기(突起) 부분에 심지를 세워 사용하였다. 등잔의 형태로 보아 따로 심지고정 장치를 두거나 또는 새발심지처럼 네 가닥으로 심지를 꼬아 그 중 세 가닥을 새의 발처럼 포개고 한 가닥을 세우는 형태를 취해 사용하였을 것이다. 간혹 돌기부분에 따로 홈을 내어 그곳에 심지를 꽂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사진 1

사진1, 사진2, 사진3의 경우 모두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토기 뚜껑형 등잔이다. 사진1은 전북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되었고, 사진2는 전북 임실 용암리사지(龍岩里寺址)에서, 그리고 사진3은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으나 백제지역 출토품이라고 전하며, 현재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진1은 회색빛깔의 바탕흙에 매우 잘 정선(精選)된 통일신라시대 경질(硬質)의 토기로서 그릇 중앙에 원추형 돌기가 있다. 등잔은 물레성형으로 토기를 제작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바닥 부분은 대칼 같은 도구로 깎아 다듬어 각이 져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등잔은 돌기(突起)와 구연부(口緣部)에 타다 남은 기름 찌꺼기가 엉겨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하였던 유물임을 알 수 있다. 사진2의 등잔 또한 실제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사진1 토기 뚜껑형 등잔// 통일신라(백제)// 바닥지름 6.1cm, 높이 2.5cm, 입지름 8cm//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 출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소장
 사진2 토기 종지형 등잔과 뚜껑형 등잔// 통일신라(백제)// (좌)지름 7.8cm, (우)지름 7.3cm//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출토//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3 토기 뚜껑형 등잔// 삼국시대(백제)// 가로 15.7cm, 세로 18.8cm, 높이 6.0cm//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사진4 흑유자기등잔편(黑釉磁器燈盞片)// 통일신라(가야)// 길이 6.7cm, 높이 3.3cm//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출토// 신라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5 토기 뚜껑형 등잔// 조선시대// 높이 3.5cm, 입지름 7.5cm, 바닥지름 5.5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전북대학교박물관의 용암리사지 발굴 당시 증지형 등잔과 함께 출토되었다. 사진3은 다른 뚜껍형 등잔에 견주어 그 크기가 다소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거북형 토제 등잔[土製龜形燈盞]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마도 등잔의 아랫부분이 거북의 등껍질 형태를 띠고 있어 명명한 이름인 듯하며, 바탕흙이 백색에 가까운 연질(軟質) 토기이다.

사진4는 가야지역인 경남 거창 천덕사지(天德寺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뚜껍형 등잔이다. 흑유(黑釉)의 자기등잔편(磁器燈盞片)으로 출토되었는데, 바닥부분은 유약이 시유되지 않고 윗부분에만 유약이 남아있다. 유약은 검은색에 가까운 청록색(靑綠色)을 띠며, 유물의 내외면(內外面)에 약간의 빙열(氷裂)이 있다. 출토품이 그릇의 조각편이지만, 윗부분에 돌출된 부분이 있어 단박에 뚜껍형 등잔의 한 형태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사진5 ~ 사진10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뚜껍형 등잔의 여러 형태를 볼 수 있는 용례이다. 토기에서부터 자기와 도기, 납석(蠟石), 놋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재질의 뚜껍형 등잔을 볼 수 있다. 특히, 사진6의 납석등잔은 다른 뚜껍형 등잔과는 달리 가운데 돌기부분에 홈을 내어 그곳에 심지를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마도 등잔을 사용하면서 보다 손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진10은 놋쇠로 제작한 뚜껍형 등잔인데, 대개 이 보다 큰 형태의 것은 재떨이로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다. 앞서 뚜껍형 등잔이 그릇의 뚜껍으로 오인한 것처럼, 이 또한 재떨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11은 한지를 꼬아 만든 새발심지로서 등잔에 얹어 사용하며, 요즘 굵판에서 더러 볼 수 있다. KEA

사진 및 자료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전북의 옛 절터 출토유물》, 20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I,
 198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II, 1996.
 국립민속박물관,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전기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개인 등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6 곱돌돌기형등잔(蠟石突起形燈盞)// 조선시대 // 지름 7cm, 높이 3.5cm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7 백자 뚜껍형 등잔// 조선시대// 높이 3.2cm, 입지름 9cm, 바닥지름 4.5cm//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천왕산 동축(扶安 實相寺址) 출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소장
 사진8 백자 뚜껍형 등잔// 조선시대// 높이 3cm, 입지름 11.8cm, 바닥지름 6cm// 전기박물관 소장
 사진9 백자 뚜껍형 등잔// 조선시대// 지름 12cm, 높이 3cm// 한국등잔박물관 소장
 사진10 유기 뚜껍형 등잔// 조선시대// 높이 1.7cm, 윗지름 13.2, 바닥지름// 개인 소장
 사진11 새발심지